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이 몸이 녹아져도 [성종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오는 애끓는 하소연] 옥황상제 처분 [어떠한 기준에 따라 처리함]이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죽어지어 혼백조차 흩어지고
공산 촉루 [해골] 같이 임자 없이 굴러 다니다가
곤륜산 제일봉에 만장송 [제일 큰 소나무]이 되어 있어
바람 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거나 [들리게 하거나]
윤희 [중생이 해탈을 얻을 때까지 그의 영혼이 육체와 함께 업(業)에 의하여 다른 생을 받아, 끊임없이 생사를 반복함] 만겁 [지극히 오랜 시간]하여 금강산 학이 되어
일만 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님의 귀에 들리기도 [들리게 하는 것도] 옥황상제 처분이겠구나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삼아
님의 집 창 밖에 외나무 매화 되어
설중에 [눈속에] 혼자 피어 침번 [베갯머리]에 이우는 [시드는] 듯
월중소영 [드문드문 비치는 그림자]이 님의 옷에 비취거든
어여쁜 이 얼굴을 너로구나 반기실까
동풍이 유정 [인정이나 동정심이 있음]하여 암향 [그윽히 풍겨 오는 향기. 어둠 속에 풍기는 향기. 매화의 향기를 일컫는 말]을 불어 올려
고결한 이내 생계 죽림 [대나무숲인데 여기서는 속세와 인연을 끊은 곳]에나 부치고저
빈 뉘싯대 비껴 들고 빈 배를 혼자 띄워
백구 [중국 송과 요의 분계를 이루던 강] 건너 저어 건덕궁에 가고 지고

■ 작품 해설

■ 이해와 감상

<만분가>는 유배 가사의 효시로 알려진 작품이다. 작자인 조위가 무오사화(戊午士禍)로 인하여 귀양간 유배지인 순천에서 지은 것이다.

작품의 내용을 보면 작자가 사화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귀양살이를 비분 강개한 심정을 임금인 성종에게 토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의 초나라 굴원이 죄없이 쫓겨나서 '이소(離騷)'를 지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듯이 자신도 죄없이 귀양와 있다는 것이다. <만분가>는 조선 전기 당쟁의 회오리 속에서 희생된 문신(文臣)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유배가사의 효시 작품이라는 점에서 우선 문학사적 가치가 매우 큰 작품이다.

또한 이 작품은 후대에 지어지는 유배가사의 일종인 송강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 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에서 임금이 계신 곳을 도가의 천상 세계로 설정한 것이라든가, 유배되어 귀양가 있는 작자는 천상에서 옥황상제를 모시던 인물로 설정된 점 등이 모두 <만분가>의 설정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조선조 유배가사의 중심적인 흐름을 이루면서 이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분가>의 유배가사의 전개에 끼친 영향과 문학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이해와 감상

1498년(연산군 4) 매계(梅溪) 조위(曹偉) 지은 가사로 작자가 1498년(연산군4)의 무오사화에서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전남 순천(順天)으로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이다. 누구에게도 호소할 길 없는 슬픔과 원통함을 선왕(先王:성종)에게 하소연하는 심정을 읊었는데, 이것은 한국 최초의 유배가사(流配歌辭)이다. 지은이가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유배된 뒤 귀양살이하는 원통함을, 천상에서 하계로 추방된 처지에서 옥황상제로 비유된 성종에게 하소연한 내용으로 작품의 가의(歌意)가 굴원의 '천문(天問)'과 비슷한 점으로 보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정철의 '사미인곡'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만분가' 한편으로는 입을 잃은 여성을 서정적 자아로 설정하여 충신연군지사(忠臣戀君之辭)의 형상을 취하는 한편, '만분가'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유배를 당하게 된 현실에 대한 발분의 정서를 아울러 표출하는 특징을 갖는 유배 가사로 작자가 귀양간 처지를 천상 백옥경에서 하계로 추방된 것에 비유하여 지은 작품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당시 지배체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당시 지배체제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는 왕권이었고, 그 왕권에 순응할 때만이 그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래서 어떤 유배가사라도 왕권에 도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왕으로부터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유배가사는 왕의 은총을 회복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

■ 핵심정리

■ 장르 : 유배가사

■ 형식 : 2음보 1구로 계산하여 127구의 유배가사

■ 주제 : 누구에게도 호소할 길 없는 슬픔과 원통함을 선왕(先王:성종)에게 하소연하는 심정을 노래

■ 특징

①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하여 연군의 정서가 보다 간절하게 느껴짐

② 자연물의 이미지를 통해 유배 중인 화자의 처지를 효과적으로 표현

③ 비유적인 수법을 통해 당대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정서를 드러냄

-자신이 억울하게 무오사화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비유의 수법으로 노래는 하고 있지만 현실 정치의 타락을 한탄하는 내용이라든지, 현실 정치의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음

④ 화자는 자신의 유배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한편 임금의 신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함

⑤ 온갖 고초와 고독감 속에서도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노래함

⑥ 당쟁의 산물로서 사대부들의 가장 쓰라린 생활감정의 표출

⑦ 대개가 단순한 귀향이 아닌 형벌의 형식으로 유배지에서 지음

■ 구성

- 서사: 적소에서 왕에게 흉중에 쌓인 말씀을 실컷 호소하고 싶어 이 글을 쓴다고 하는 동기
- 본사: 사화로 인해 전일의 영화가 현재의 억울하고 처참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으나 이 역시 천명이니 황제의 처분만 바란다는 내용(자기를 굴원에 비유)
- 결사: 원한에 쌓인 자기의 심정을 안타까워하면서 만일 누구든 제 뜻을 알아주는 이만 있다면 평생을 함께 사귀고 싶다고 함

■ 의의 : 유배가사의 최초

■ 발표 : 1498년(연산군4)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앞부분 줄거리] 옹고집은 성격이 고약한 부자이다. 어느 날 옹고집 앞에 가짜 옹고집이 나타나, 서로가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한다.

두 옹고집이 송사[진위를 가리는 소송] 가는 제, 읍내를 들어가니 짚옹고집 거동 보소.[서술자의 개입] 주저 없이 제가 앞에 가며 읍의 촌가인[시골 마을에 있는 집] 하나와 만나 보면 깜짝 반겨 두 손을 잡고, “나는 가변[집 안의 재앙이나 사고]을 송사하러 가는지라. 자네와 나와 아무 연분에[관계가 있는 인연] 서로 알아 죽마고우로 지냈으니 나를 몰라볼쏘냐.”

또 하나를 보면, “자네 내게서 아무 연분에 돈 오십 냥을 취하여 갔으니 이참에 못 주겠느냐. 노잣돈[빌려준 돈을 지금 소송하러 노잣돈으로 쓸 테니 갚아라] 보태 쓰게 하라.”

또 하나 보면, “자네 쥐골평 논 두 섬지기 이때까지 소작할 제, 거년 선자(先資) * 스물닷 말을 어찌 아니 보내는가.”

- 세세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다 아는 짚옹고집

이처럼 하니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을 본즉 낱낱이 내 소견대로 내가 할 말을 제가 먼저 하니 기가 질려 뒤에 오며, 실성한 사람같이, 아는 사람도 오히려 짚옹고집같이도 모르는지라.[짚옹고집의 행태에 놀라 짚옹고집보다 아는 사람을 몰라 봄.]

짚옹고집이 노변에서[길가]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하는 말이,

“가운이 불길하여 어떠한 놈[참옹고집]이 왔으되 옹모 나와 비슷해 제가 내라 하고 자칭 옹고집이라 하기로, 억울한 분을 견디지 못하여 일체 구별로[진위를 구별하려고] 송사하러 가는지라. 뒤에 오는 사람이 기네. 자네들도 대소간 눈이 있거든 혹 흑백을 가릴쏘냐.[너희들이 봐도 누가 진짜 옹고집 같으나, 내가 분명하지 않은가]”

참옹고집이 뒤에 오면서 기가 막히고 얼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울음 울 제, 행인들이 이어 보고 하는 말이, “누가 알아보리오. 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상동이란 말밖에 또 하리오.”[둘 다 똑같이 생겼다]

(중략)

짚옹고집 반만 웃고[송사에 이김]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내정[안뜰]으로 들어가니 처자 권숙[가족]이 내달아 잡고 들어가니, “하늘도 무심치 아니하기로 내 좋은 형세[형편, 여기서는 재산]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송사를 이긴 내력을 말하니 처자 권숙이며 상하 노복[종] 등이 참옹고집으로 알고, 마누라는, “우리 서방님이 그런 고생이 또 있을까.”

못[여러] 아들 나서며, “그런 자식에게 아버지가 큰 봉재를 보았다.”[욕을 보았다]

노복 종이며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거늘, 짚옹고집이,

“내가 혈혈단신으로 자수성가하였기로 전곡[곡식, 재산]을 과연 아낄 줄만 알았더니 내빈 왕객 접대 상[손님 대접]과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더니 인심부득 절로 되어 이런 재변이 난 듯싶으니, 사람 되고 개과천선 못 할쏘냐. 오늘부터 재물과 곡식을 흠어 활인구제(活人救濟)하리라[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한단 말이 낭자하니 팔도 거지들과 각 절 유걸승[떠돌아 다니며 구걸하는 중, 시주를 청하는 중]들이 구름 모이듯 모여드니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주니 옹고집은 인심 좋단 말이 낭자하더라.[서술자의 개입]

하루는 주효[술과 안주]를 낭자[어지럽게, 푸잡하게]케 장만하고 원근에 모모한[멀고 가까운 꿈을 만한] 친구며 사방 사람을 청좌[초대]하여 대연[큰 잔치]을 배설할[열] 제, 이때의 참옹고집 전전걸식[구걸하며 다님] 하다가 맹랑촌 옹고집 활인구제한단 말 듣고 분심[분한 마음]으로 하는 말이,

“남의 재물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은 어떤 놈의 팔자인고. 찾아가서 내 집 망종[집이 망하는 것] 보고 죽자.”

하고 죽장망혜로 찾아가갈 제, 짚옹고집 도술 보고[짚옹고집이 도술을 부릴 줄 앎] 근처에 참옹고집 온 줄 알고 사

환[심부름꾼]을 분부하되,

“오늘 큰 잔치에 음식도 낭자하고 걸인도 많을 제, 타일[다른 날] 천하게 다투던 거짓 옹가 놈이 배도 고프고 기한(飢寒)[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전전걸식 다닐 제, 잔치 소문을 듣고 마을 근처에 왔으나 차마 못 들어오는가 싶으니 너희 등은 가서 데려오라. 일변[한편으로] 생각하면 되도 못할 일[참옹고집이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한 일] 하다가 중장(重杖)[엄중한 곤장]만 맞았으니 불쌍하다.”

사환 등이 영을 들고 사방으로 나가 보니 과연 마을 뒷산에 앉아 잔치하는 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앉았거늘 사환들이 바로 가서 영겁결에 배례[절 하고]하고 문안[인사를 올리니]하니, 슬프다.[서술자의 개입] 참옹고집이 대성 통곡 절로 난다.

사환들이 가자 하니, “갈 마음 전혀 없다.”[가 봤자 자신이 진짜임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놈이 부축하여 들어가서 좌상[자리]에 앉히니 짚옹고집 일어서며 인사 후에,

“네 들어라. 형세 있어 좋다 하는 것이 활인구제하여 만인적선이 으뜸이거늘[돈이 많으면 가장 좋은 일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다] 천여 석 거부로서 첫째로는 부모박대하니 세상에 용납지 못할 놈이요[유교적], 둘째는 유결산승 옥보이니 불도가 어찌 허사리오.[시주하러 온 중을 박대함. 불도를 어찌 업신여기는가. 불교적] 우리 절 도승이나를 보내어 묘하신 불법으로 가르쳐서[전기적] 너의 죄목을 잡아 아주 죽여 세상에 영영 자취 없게 하여 세상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하라 하시거늘 너를 다시 세상에 내어 보내기는 나의 어진 용심[마음 씩씩이]으로 살린 것이니, 이만해도 후생[뒷 사람들에게]에게 너 같은 행실을 징계한 사례가 될 듯싶으니 이후는 아무쪼록 개과하라.”

하고, 좌상에 나앉으며 문득 자빠지니 허수아비 찰벼 짚뭉음이라.

이로 좌상이 다 놀라 공고를 하고 옹고집이 이날부터 개과천선하여 세상에 전하여 일가친척이며 원근친고 사람에게 인심을 주장하니 옹고집의 인심을 만만세에 전하더라.[행복한 결말, 권선징악]

- 작자 미상, 「옹고집전」 -

*선자: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드는 돈.

▣ 작품 해설

★ 6모 수록 작품은 작품해설과 약간 다른 이본으로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이해와 감상

■ 설화를 적극 수용한 것은 판소리계 소설의 일반적 특징과 연결됨

- 불교적인 설화를 주제로 한 한글본 풍자소설인데, 판소리로 불리어질 때는 '옹고집 타령'이라고 한다.
- 동냥 온 중을 괘시해서 화를 입게 되었다는 설정은 '장자못이야기'와 상통한다. 부자이면서 인색하기만 한 인물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도승이 도술을 부렸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한다. 그러면서 가짜가 와서 진짜를 몰아내게 되었다는 줄거리는 쥐를 기른 이야기와 같다.(쥐에게 밥을 주어서 길렀더니 그 쥐가 사람으로 변하여 주인과 진짜 싸움을 한 끝에 주인을 몰아냈다는 유형의 이야기)

★ 장자못설화와 옹고집전

■ 옹고집전

인색한 옹고집

부모에게 불효하고 도승을 모욕함

알려줌

허옹가가 나타나 옹고집이 쫓겨남

허옹가가 사라지고 옹고집이 개과천선함

■ 장자못 설화

인색한 부자

시주승을 모욕함 - 도승이 선행을 베푸는 며느리에게 재앙을 피할 방도를

큰 비가 쏟아지는 재앙이 내림 - 며느리가 금기를 어겨 화석이 됨

부자의 집이 못에 잠김

■ 조선후기에 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오직 부를 추구하는 데만 몰두하여 윤리도덕이나 인정 같은 것은 온통 저버린 부류에 대한 반감이 작품을 통해서 반영된 결과

:옹고집이라는 인물은 놀부와 상통(심술이 많고 인색한 점에서 이 둘은 공통적인데, 금전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인간형으로 윤리도덕이나 인정 같은 것은 온통 저버린 부류로 이에 대한 반감이 반영되었다. 그런데 반감이 새로운 사회윤리를 제시하는 데 이르지 못하고, 전래적인 가치관과 불교신앙을 다시 긍정하고 만것은 작품의 한계라 할 수 있다.

★ '옹고집'과 '놀부'의 인간형

흥부전의 '놀부'와 옹고집전의 '옹고집'은 심술이 많고 인색하다는 점에서 그 인간형이 비슷하다. '옹고집'과 '놀부' 모두 조선 후기 계층의 분화에 따라 등장한 신흥 서민 부자 계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중에는 극단의 이기적인 행동과 사회 윤리를 무시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옹고집전'은 '흥부전'과 함께 바로 이런 악덕 서민 부자에 대한 일반 서민들의 반감을 기반으로 한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소설로 볼 수 있다. 현대 소설에서도 이와 같은 놀부형 인물이 등장하는데, 채만식의 '태평천하'에서 윤직원은 일제가 조장한 상업자본주의에 기생하여 자신의 부를 늘린 대표적인 인물이다. 또한 '살아있는 이종생 각하'에서의 '이종성' 같은 인물을 옹고집과 놀부의 후예로 볼 수 있다.

★ '옹고집'과 '놀부'의 공통점

공통점

- 등장 배경: 금전적 이해 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조선 후기에 새롭게 나타난 인간형
- 성격: 심술 많고 인색한 성격, 극단적인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사회 윤리를 무시
- 결과: 개과천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며 새사람이 됨

■ 작품 전개에 도술을 개입시켜 현실감을 살리지 못한 편이고, 과장이나 말장난에서 흥미와 웃음을 찾으려고 하였다.

▣ 핵심 정리

■ 연대, 작가: 미상

■ 형식: 고전 소설, 풍자소설, 판소리계 소설, 설화 소설

■ 성격: 해학적, 풍자적

■ 특징

- 장자못 설화를 바탕으로 권선징악의 주제를 나타냄
-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과 유교의 효 사상을 기본으로 함
- 인물의 교화 과정에 초점

'흥부전'의 놀부와 '옹고집전'의 그 인간형이 비슷하고 그 실마리도 비슷하다. 그러나 놀부보다는 옹고집이 훨씬 개성적이다. 옹고집은 끝에 가서 자살을 결심할 만큼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 인물

- 옹고집 : 옹진골의 부자로, 부유하지만 인색하며, 부모에게 불효하고 불도를 능멸한 죄로 수난을 겪음
- 도사 : 월출봉 취암사의 스님으로 옹고집의 악행을 듣고 그를 징계하여 개과천선시킴

■ 구성

- 발단: 고약하고 인색한 옹고집이 어머님께 불효하고 스님을 능멸함
- 전개: 도사가 옹고집을 벌주려고 가짜 옹고집을 만듦
- 위기: 진짜 옹고집과 가짜 옹고집이 진위를 다툼
- 절정: 진짜 옹고집이 송사에서 쫓겨나 거지가 되어 떠돌
- 결말: 도사의 용서로 진짜 옹고집이 가정을 되찾고 개과천선하여 행복하게 삶

■ 관련 설화

인색한 부자-인색한 옹고집

시주승을 모욕함 - 도승이 선행을 베푼 며느리에게 재앙을 피할 방도를 알려줌
부모에게 불효하고 도승을 모욕함

큰 비가 쏟아지는 재앙이 내림 - 며느리가 금기를 어겨 화석이 됨

허용가가 나타나 옹고집이 쫓겨남

부자의 집이 못에 잠김

허용가가 사라지고 옹고집이 개과천선함

■ 주제: 인간의 참된 도리에 대한 교훈, 권선징악(勸善懲惡), 적악지가(積惡之家)에 필유여앙이요, 적선지가(積善之家)에 필유여경(악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재앙이 있고,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경사로운 일이 있다)

인색한 부자가 중에게 쇠뿔을 주었다가 벌을 받았다는 내용의 설화. 증거물을 동반한 지명설화로 흔히 장자의 악행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몰래 시주한 며느리가 중이 제시한 금기를 어겨 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함께 붙어 있다. 이 설화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며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지명전설의 하나이다.

현재 장자못이 있다고 확인된 곳만 하여도 강원도 태백시의 황지못을 비롯하여 백여 군데가 된다. 풍부한 구전설화에 비하여 문헌자료는 거의 없는 편으로 《조선읍지》에 구전 자료를 기록한 두 편이 있을 뿐이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아주 인색하고 포악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중이 와서 동냥을 달라고 하자, 장자는 외양간을 치고 있다가 쌀 대신 쇠뿔을 바랑에 넣어 주었는데 중은 그냥 받아갔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장자의 며느리가 몰래 쌀을 퍼다가 바랑에 담아 주었다. 그러자 중이 “ 당신이 살려면 지금 나를 따라오되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 는

금기를 주었다.

며느리는 집을 떠나(혹은 기르던 개를 데리고, 아기를 업고, 벼를 이고) 산을 오르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참고 돌아보지 않았으나 갑자기 커다란 소리가 들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보았다. 며느리는 자기가 살던 집이 못이 되었으므로 놀라 그 자리에서 돌이 되었다. 지금도 그 부자의 집터가 변한 못과 바위가 남아 있다.

이 설화에서 중은 도승, 또는 거지로 변이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며느리는 딸·아내·하녀로 변이되기도 한다. 결구에서 며느리바위는 미륵바위·벼락바위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장자의 집이 못이 될 때에 장자는 구렁이로 변해서 그 못에서 살고 있다는 변이형도 있다. 이 설화는 크게 부자가 중을 학대한 벌로 집이 함몰하였다는 장자못 부분과, 며느리가 금기를 어겨 돌이 되었다는 화석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증거물에 따라 때때로 어느 한 부분만이 따로 이야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대체로 앞의 장자못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타난다. 이 설화의 앞부분인 인색한 부자의 악행과 그에 대한 징벌로서의 패망은 몇 가지 유사한 설화 유형으로 변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인색한 부자가 지나가는 중을 학대하였더니, 그 중이 부자에게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속이고는 현재 발복(發福)의 근원인 명당의 혈(穴)을 자르게 하였다. 탐욕스러운 부자는 욕심이 나서 그대로 하였다가 망해 버렸다는 이야기는 징벌의 수단으로 풍수리지설을 이용한다. 유사한 설화로는 자기 집 중을 학대하자 중의 자식이 집을 나가 풍수지리를 공부하고 돌아와서 주인집의 명당혈(明堂穴)을 자르게 하여 망하게 하였다는 유형도 있다.

이러한 변이형은 악행을 저지른 부자의 탐욕을 역이용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악행에 대한 응징이라는 주제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장자못설화는 단순한 악행응징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등장하고 있는 세 명의 인물들은 각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중은 초자연적인 세계의 절대선적(絶對善的)인 질서를 대변하는 존재이고, 장자는 세속적인 본능적 욕망의 표상이며, 며느리는 초월적 질서와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장자못설화가 권선징악적 교훈 이상의 인간의 존재 양상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담은 설화임을 말해 준다.

이 설화는 구약성서의 '소돔과 고모라' 와도 비교된다. 두 이야기는 문화적·종교적 배경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설화의 세계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이 설화는 광범위하게 전승되므로 향유층의 의식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폭넓은 분포와 전승 과정에서 파생된 변이는 설화 변이의 연구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고대소설 < 옹고집전 > 이 형성되게 한 근원설화이며, 현대소설 < 인간문제 > 와 < 돌 > 의 소재가 됨으로써 설화의 소설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 의의: 금전적 이해 관계를 추구하는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인간형을 등장시켜, 새로운 소설적 인물을 창조함

▣ 줄거리

옹진 고을에 사는 옹고집은 심술 사납고 인색하며 불효한 인간으로서, 거지나 중이 오면 때려서 쫓기 일쑤였다. 이에 도술이 능통한 도사가 학대사(鶴大師)를 시켜 옹고집을 징계하고 오라 했으나 오히려 매만 맞고 돌아왔다. 화가 난 도사가 초인(草人)으로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옹고집의 집에 가서 진가(眞假)를 다투게 하였다. 진짜와 가짜를 가리고자 관가에 송사까지 하였으나 진짜 옹고집이 도리어 저서 집을 쫓겨나고 걸식 끝에 비관 자살하려 하는데 도사에게 구출된다. 도사에게서 받은 부적으로 가짜 옹고집을 다시 초인으로 만든 그는 크게 참회하고 독실한 불교신자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떠돌이 삶을 사는 예인의 길]

소리꾼[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는 존재-‘악새’와 동일시]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악새(왜가리)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외양]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뛰어나게 잘 부른 노래]을 찾아 떠돌더니[득음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예술혼]

오늘은, 악새[시적 대상] * 울음 되어 우향산 솔밭을 다 적시고[솔밭에 퍼지는 울음소리를 형상화]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 질러 놓는다[생명력을 복돋워 주는 악새의 울음소리]

- 1~7행 악새 울음이 되어 우포늪에 꽃불 질러 놓는 소리꾼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텅텅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

늙은 고수[북이나 장구 따위를 치는 사람]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신명 나는 모습]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해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악새의 울음소리] 속에 있었던가

- 8~13행 : 소리꾼이 평생 찾아 해맸던 소리를 우포늪에서 찾음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양파 줄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 자연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모습]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 넘어가는

저 악새들[날아가는 악새들의 모습을 소리꾼이 완창한 모습에 비유]

완창[판소리 한 마당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일]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생명력을 복돋워 주는 악새의 울음소리]

- 14~19행 : 우포늪 꽃잔치를 무르익히는 악새 울음

- 배한봉, 「우포늪 악새」 -

* 악새: 왜가리의 별명.

* 동편제: 판소리의 한 유파.

★ 어려운 작품이다. 다음의 내용을 잘 정리하자.

우포늪의 악새 소리를 들으니 평생 득음을 못 이룬 비극적인 떠돌이 소리꾼이 생각난다.

아마 소리꾼이 평생 얻으려 한 명창은 저 우포늪의 생명력 넘치는 악새 소리 같은 것일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은 소리꾼의 판소리(전통적 예술)와 우포늪의 악새 소리(자연)를 연결지어 우포늪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우포늪은 판소리의 명창과 같이 아름답다.)

▣ 작품 해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생태적, 관조적, 향토적
제재	우포늪의 왁새	주제	우포늪이 가진 생명적 가치 생명 공동체인 우포늪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의 자연친화 사상이 담겨 있음. •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상을 감각적으로 전개함. • 우포늪에 사는 왁새 울음소리를 소리꾼의 목소리에 빗댄. • 우포늪의 생명적 가치를 소리꾼의 진정한 소리를 통해 형상화함. 		
작가	배한봉(裴漢奉, 1962~)	출전	"우포늪 왁새"(2002)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우포늪에 살고 있는 시인이 '살아 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 불리는, 우포늪이 가진 원시의 생명력을 통해 생명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다.

우포늪에 가면 여기 저기서 어렵지않게 왁새(왜가리)를 발견할 수 있다. 시인의 시상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왁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전생애 득음을 못한 채로 생을 마감한 소리꾼을 떠올린 것이다. 물론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화자의 상상 속에서 나온 인물이다. 시골장에서 막걸리 한 사발이면 만족하는 소탈한 소리꾼이지만 평생 동안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것 같은 진정한 소리를 찾아 헤맸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포늪에 와서 왁새의 울음이 되어 우포늪의 솔밭과 자운영에 퍼지는 것이다.

소리꾼의 입장에서 보자면, 소리꾼은 평생 혈혈단신으로 슬픔을 안고 살았다. 가끔 늙은 수를 만났을 때 소리 한 번 해 보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던 그가 우포늪에서 왁새 울음이 되어 평생을 꿈꾸어 오던 완창을 하게 된 것이다. 그건 우포늪의 원시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의 심연을 끌어 올렸기 때문이다. 소리꾼 안에 잠재되어 있던 생명의 힘을 건져 올렸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시인은 이렇듯 우포늪이 가진 원시 생명력의 힘이 지구를 살아가는 모든 생명 공동체의 심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의 힘을 이끌어 낼 것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의 구조

이 시에서 우포늪의 왁새는 평생 득음을 못한 소리꾼으로 비유된다. 왁새가 된 소리꾼은 우포늪에서 근원적인 생명의 힘을 얻음으로써 영혼의 심연에서 나오는 진정한 소리를 만나게 된다. 원시 생명력을 가진 우포늪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태어난 소리꾼의 완창 소리는 우포늪을 비롯한 생명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게 된다.

즉 이 시는 한 소리꾼이 진정한 소리를 찾아 완창하는 과정을 통해 우포늪이 갖고있는 원시 생명력의 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그 바위[오심암, 중심 소재]를 가리켜 어느 건방진 옛사람[감히 자연의 절경이 자신의 마음과 같다고 표현했기 때문에]이 오심암(淸心岩)[나의 마음을 나타낸 바위]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한다. 그보다도 조금 겸손한 누구는 세심암(洗心岩)[자신의 마음을 씻는 바위]이라고 불렀다 한다.[견문]

기운차게 일어난 산발[산줄기]이 이곳에 이르러 오심암의 절경을 남기기 위하여 한 동근 골짜기를 이루어 놓고 다시 다물어졌다.[활유, 의도를 갖고 산줄기가 내려갔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의인법도 됨]

질은 단풍 빛에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의 성장(盛裝)[화려하게 차려 입음], 그것을 선을 두른 동해보다도 더 푸른 하늘빛, 천사가 흘러고 간 형겁인 듯[직유] 봉우리 위에 가볍게 비낀 백옥보다도[비교법] 흰 얇은 구름 조각. [오심암의 경치]

이것은 분명히 자연이 흘러 놓은 예술의 극치다. 그러나 겸손한 자연은 그의 귀한 예술이 홍진(紅塵)[세속]에 물들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이 깊은 산골짜기에 감추었던 것인가 보다.[의인]

어귀까지 ‘버스’[세속]를 불러오고 이곳까지 2등 도로를 끌어 오는 것은 본래부터 그의 뜻은 아니었을 게다. 오직 사람[=홍진=버스]만이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을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나 보다.[인간의 욕심]

둘러보건대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세속]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세속]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 잠깐 내 자신을 굽어보니 허영계 먼지[세속] 낀 의복, 그 밑에 숨은 먼지[세속] 낀 내 몸뚱어리, 그리고 또 그 속에 얹드린 먼지[세속] 낀 내 마음, 나는 그 텃기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에 쓰레기[세속적인 마음]처럼 동떨어진 내 몸의 더러움을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하였다.[세속에 찌든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순수한 자연과의 대조, 티 없이 맑은 자연의 경치를 보고 세속에 찌든 자신을 반성]

(중략)

차디찬 바위 위에 신발을 벗고 모자를 던지고 외투를 벗어 팽개치고 반듯이 누워서 눈을 감으니 인생도 예술도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오직 끝없는 망각이 내 마음을 아니 우주를 채우며 온다.[자연과의 동화] 그러나 몸을 식히며 스며드는 찬기는 어느새 거리[세속]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위치를 깨닫게 한다. 우리는 채 씻기지 않은 마음을 거두어 가지고 잠시나마 정을 들인 오심암을 두 번 세 번 돌아다보면서 간 길을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좋은 벗[자연, 오심암] 떠나기란 싫은 것처럼, 좋은 자연에도 석별[애절한 이별]의 정은 마찬가지로 보인다. 또한 좋은 음식을 만났을 때 벗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떠나고 싶지 않은 자연을 앞에 두고는 멀리 있는 벗들이 갑자기 그리웁다. 나는 마음속으로 어느새 오심암에게 무언(無言)의 약속을 주어 버렸다.

‘내년에는 벗을 데리고 또 찾아오마’고.

- 김기림, 「주을온천행」 -

▣ 작품 해설

갈래 : 경수필. 시적(詩的) 수필. 기행 수필

성격 : 낭만적. 감상적

문체 : 화려체. 만연체. 우유체

표현 : 서경과 서정이 조화를 이룸. 선경후정(先景後情). 감각적인 언어, 다양한 표현 기교를 구사하여 미려하나 현란한 느낌을 줌. 신선하고 섬세한 표현으로 정경과 감회를 묘사

제재 : 오심암 기행

주제 : 오심암의 장관과 탐승(探勝)의 정취. 자연과 세속을 대비, 세속적인 삶에 대한 반성

▶ 작품 해설

지은이는 오심암의 풍치와 절경과 거기서 오는 낭만적 정감을 신선한 감각과 화려하고 섬세한 문체로 표현함으로써 기행문이라는 단순한 기록성을 뛰어넘어 서경과 서정이 잘 조화된 문학으로 승화시켜 기행 수필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고 있다.

이 작품은 오심암에서 느낀 감회를 낭만적, 감상적으로 그린 수필이다. 여행객이 지닌 가벼운 해방감과 감수성으로 노정을 선명히 드러내고, 관찰과 연상에 의해 작자의 유려한 문체와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 있기도 하다.

이처럼, 기행문이라는 형식이 지닌 단순한 기록성을 뛰어넘어 서경과 서정이 잘 조화된 문학으로 승화시킴으로써, 기행 수필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고 있다. 선경후정(先景後情)이라는 표현이 있다. 오심암의 경(景)을 먼저 구경하고, 여기에서 촉발된 작자의 정(情)을 담담히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시적(詩的) 수필에 가깝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앞부분 줄거리**] 어린 시절의 친구 은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발표했던 ‘나’는 어느 날 오랫동안 소식을 몰랐던 은자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은자의 전화가 걸려 왔다. 토요일이었다. 이제 오늘 밤과 내일 밤뿐이었다.[**은자가 부친을 떠남**] 은자도 그것을 강조하였다.

“설마 안 올 작정은 아니겠지? 고향 친구 한번 만나 보려니까 되게 힘드네. 야, 작가 선생[**서술자**]이 밤무대 가수 신세인 옛 친구 만나려니까 체면이 안 서데? 그러지 마라. 네 보기엔 한심할지 몰라도 오늘의 미나 박이 되기까지 참 술하게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으니까[**삶의 시련**].”

그렇게 말할 만도 하였다. 고상한 말만 골라서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저렇게 되면 곤란하다, 라고 말하는 게 능사인 작가에게 밤무대 가수 친구가 웬 말이냐고 불멘소리를 해 볼 만도 하였다.[**작가의 체면에 대한 은자의 말**]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박은자에서 미나 박이 되기까지 그 애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진 모양이었다. 누군들 그러지 않겠는가. 부친으로 옮겨 와 살게 되면서 나는 그런 삶들의 윤기 없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었다.[**힘든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음**] 딱히 부친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친 사람이어서 그랬을 것이었다. 창가에 붙어 앉아 귀를 모으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넘어져 상처 입은 원미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힘든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한 공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는 실패의 되풀이 속에서도 그들은 정상을 향해 열심히 고개[**한계령**]를 넘고 있었다. 정상의 면적은 좁디 좁아서 아무나 디딜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엄연한 현실도 그들에게는 단지 속임수로밖에 납득되지 않았다. 설령 있는 힘을 다해 기어올랐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리막 길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수긍하지 않았다. 부딪치고, 아등바등 연명하며 기어나가는 삶의 주인들[**소시민적 삶**]에게는 다른 이름의 진리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인생이란 탐구하고 사색하는 그 무엇[**작가가 생각하는 인생의 의미**]이 아니라 몸으로 밀어 가며 안간힘으로 두들겨야 하는 굳건한 쇠문[**삶의 고난, 힘들게 살아가는 현실**]이었다. 혹은 멀리 보이는 높은 산봉우리였다.

(중략)

일 년에 한 번씩 타인의 낯선 얼굴을 확인하러 고향 동네에 가는 일은 쓸쓸함뿐이었다. 이제는 그 쓸쓸함조차도 내 것으로 남지 않게 될 것이었다.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었다. 고향은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이니까. 누구는 동구 밖의 느티나무로, 갯마을의 짠 냐새로, 동네를 끼고 흐르는 긴 강으로 고향을 확인하며 산다고 했다. 내게 남은 마지막 표지판은 은자인 셈이었다. 보이는 것들은, 큰오빠까지도 다 변하였지만 상상 속의 은자는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다.[**내가 느끼는 은자의 가치**] 은자만 떠올리면 옛 기억들이, 내게 남은 고향의 모든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오곤 하였다. 허물어지지 않은 큰오빠[**현재와 대비**]의 모습도 그 속에 온전히 남아 있었다. 내가 새부친 클럽에 가서 은자를 만나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표지판에 기대어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알 수 없었다.[**주인공은 유년 시절의 소중한 기억을 훼손되지 않기를 바램. 변한 것은 기억 속의 은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자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나는 전혀 떠올릴 수가 없다. 설령 클럽으로 찾아간다 하여도 그 애를 알아볼 수 있을지 자신할 수도 없었다. 내 기억 속의 은자는 상고머리[**스포츠머리**]에, 때 낀 목덜미를 물들인 박 씨의 역센 손자국, 그리고 터진 겨드랑이 사이로 내보이던 낡은 내복의 계집아이로 붙박여 있었다. 서론도 훨씬 넘은 중년 여인의 그 애를 어떻게 그려 낼 수 있는가. 수십 년간 가슴에 품어 온 고향의 얼굴을 현실 속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다, 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만나 버린 뒤에는 내게 위안을 주었던 유년의 소설[**유황불**]도, 소설 속의 한 시대도 스러지고야 말리라는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현실로 나타난 은자를 외면할 수 있을는지 그것만큼은 풀 수 없는 숙제[**현실과 소중한 추억에 대한 갈등**]로 남겨 둔 채 토요일 밤을 나는 원미동 내 집에서 보내고 말았다.[**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가장 중요한 의미인 ‘한계령’의 의미와 연관된 내용이다. 이 소설의**

중심 소재는 '소시민들의 고단한 삶'이다. 인생은 힘들다. 힘든 일이 태반이다. 학생 여러분이 지금 힘든 것 이상으로 어른이 되어서는 더 힘든 일들을 술하게 겪어야 한다.(큰 오빠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유년 시절의 즐거웠던 추억을 상기하며 스스로 위로를 하곤 한다. 이를 주인공은 잃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일요일 낮 동안 나는 전화 걸을 떠나지 못하였다. 이제 은자는 가시 돋친 음성으로 나의 무심함을 탓할 것이었다. 그녀의 질책을 나는 고스란히 받아들일 작정이었다. 나는 그 애가 던져 올 말들을 하나하나 상상해보면서 전화를 기다렸다. 오전에는 그러나 한 번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 일요일은 언제나 그랬다. 약속을 못 지킨 원고가 있더라도 일요일까지 전화를 걸어 독촉해 올 편집자는 없었다. 전화벨이 울린다면 그것은 분명 은자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 작품해설

■ 이해와 감상

<한계령>은 70년대 도시 인구조류 유입된 시골 사람들이 도시에 적응하지 못한 채, 어떤 형태로 유랑하고 있는가를 다룬 작품으로서, 고도화된 현실에 대해 부정적 가치관을 지닌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삶에 적응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지난 기억의 아름다움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는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어릴 적 단짝 동무였던 은자 그리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큰 오빠의 삶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신적 여유를 잃어가는 현대인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어릴 적 단짝 동무를 만나고 싶은 욕구와 그 만남으로 인해 소중한 추억이 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교묘히 교차되고 있는데, 작가는 뛰어난 관찰력과 묘사로 주인공의 심리를 섬세하게 포착하고 있다.

큰오빠와 은자를 통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의 힘들고 고단한 삶을 바라보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대중가요 한계령이라는 노래와 절묘하게 어울려 감동을 주고 있다.

양귀자 특유의 아름답고 간결한 문체로 독자에게 신선감을 주는 이 작품은 물질 만능화된 현대 사회에서 주변 인물로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삶을 따뜻한 눈으로 유머러스하게 그려내었다.

■ 이해와 감상

<한계령>은 양귀자의 연작소설집 『원미동 사람들』에 실린 단편 소설이다. 작가는 1982년 부천 원미동으로 이사하여 겪게 된 일들과 만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묶어 <원미동 사람들>을 냈는데, 이 창작집에서 1980년대의 한국 단편 문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번두리 소시민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과 그에 바탕을 둔 꼼꼼한 묘사로 1988년에는 제5회 류주현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계령>에 나오는 옛 고향 친구 은자는 양귀자가 1984년에 발표한 <유황불>이라는 작품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작가 자신의 삶과 작품은 별개라는 점을 알면서도 <한계령>에서 우리는 작가 양귀자의 유년시절을 읽는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와 젊은 나이에 대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큰오빠, 그리고 네 오빠와 동생이 있던 그 시절의 가난이나 궁핍함은 결코 어둠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빗속에서 들었던 친구의 노랫소리나, 형제끼리 용돈을 모아 사 먹었던 찐빵처럼 소박하고 따뜻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작품의 첫 장면에서 '찐빵집 하던 철길 옆의 그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건다. 작중 상황은 옛 친구가 다시 만나자며 전화를 걸어오는 것과 '나'의 큰오빠가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교차되며 진행된다. 옛 친구 은자는 자꾸만 어서 만날 것을 조급히 재촉하지만, '나'는 옛 추억 속에서 고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은자를 현실 세계에서 만나게 되는 일을 자꾸만 망설이게 된다. 결국 '나'는 은자를 찾아간 나이트클럽에서 허망하고 적적한 '한계령'을 들으며, 어두운 조명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 여가수가 바로 은자일 것임을 확신한다. 고생스럽게 생계를 꾸려온 작중 화자의 큰오빠나 밤무대 가수 생활을 하며 고생하던 은자나 모두 안간힘을 쓰며 인생의 산봉우리를 넘어온 사람들이었다고, 노래를 듣는 내내 '나'는 생각한다. 황량한 인생의 길을 걸어 그 정상에 도달했다고 해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내려가라는 산울림뿐이었던 것이다. 힘겹게 삶을 꾸려낸 뒤 얻게 되는 인생의 허망함을 '나'는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나'가 나이트클럽을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은자를 만나지 않은 채 돌아오게 되는 것은 결국 그 '한계령'이라는 노래를 통해, 이미 은자의 삶의 여정을 다 이해했기 때문이다.

'나'가 바라보는 인생은 결코 허무한 무엇이 아니다. 결말 부분에서 '나'는 은자가 개업했다는 '좋은 나라'라는 카페 이름을 듣게 된다. 힘겹게 삶의 음지를 디더온 은자가 이제 비로소 다다른 곳은 결국 '좋은 나라'였던 것이다. '좋은 나라'는 인생의 고단함을 딛고 정상에 다다른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끼게 되더라도 결국엔 '좋은 나라'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작가의 생각을 담고 있다.

이 소설은 위 작가의 대표작인 "원미동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는 작품이다. "원미동 사람들"은 작가가 1982년 부천 원미동으로 이사해서 겪은 일들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두 1986년과 1987년에 씌어진 작품으로, 각 작품의 서술자와 주인공은 모두 작가가 부천 원미동에서 만난 사람들을 모델로 한 것이다.

이 작품은 가수 양희은의 동명(同名) 노래인 '한계령'이 테마 음악으로 깔려져 있는 듯한 작품으로, 서술자가 이십연도 훨씬 전의 어린 시절 동무인, 철길 옆에 살며 찌뽕집을 하던 은장에게 전화를 받으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작품은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찾는 과정을 통해 지난 기억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준다. 곧 이 작품은 "원미동 사람들"에 실린 다른 소설들과 같이 근대화로 인해 삶의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의 소시민적 삶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의 삶이라면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이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두 개의 노래를 이야기가 전개되는 곳곳에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노래들은 소시민들이 갈구하는 정신적 위안이 어떤 것인지를 환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핵심 정리

■ 갈래 : 단편소설, 현대소설

■ 배경 : 서울과 부천.

■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 성격 : 회고적, 성찰적, 상징적

■ 문체 : 여성적 어조가 드러나는 아름답고 간결한 문체

■ 구성 : 회고적 구성, 액자식 구성

■ 표현상 특징

'한계령'이라는 노래를 통해 작가의 인생관이 효과적으로 표현됨.

부천이라는 실제 지명의 사용으로, 이야기의 현실성을 더해 줌.

현재와 과거의 회상이 교차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됨(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을 역전시키는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입체감을 살림)

■ 주제

소시민이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받는 위안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소시민의 삶과 소박한 꿈

■ 인물

나 → 작품의 주인공이자 화자이며 여류 작가. 섬세한 성격이며 소심한 면도 있어, 옛 친구 은자와의 조우를 자꾸만 망설이게 됨.

은자 → 주인공 '나'의 어린 시절 단짝 친구로, '나'를 몹시 보고 싶어하는 인물. 하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게 되자 '나'의 무심함을 탓하며 원망하기도 하지만, 본심은 착해서 이해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함.

큰오빠 → 주인공의 큰오빠로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 온 인물. 열심히 살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득 찾아온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에 힘겨워 함.

■ 구성

발단 : 작가인 '나'는 자신을 기억하는지 묻는 옛친구 박은자의 전화를 받고 가수로 활동하는 나이트클럽에 찾아올 것을 요청함.

전개 : 은자의 계속되는 재촉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만 망설이게 됨.

위기 : 은자는 자신이 이번주까지만 밤무대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끝내 망설이던 '나'는 일요일까지 안절부절 못함.

절정 : 마침내 나이트클럽에 간 '나'는 그곳에서 '한계령'이라는 노래를 듣고 감동하며 그 여가수가 은자일 것이라고 확신한 채 그냥 돌아옴.

결말 : 며칠 후 다시 전화한 은자는 나의 무심함을 탓하며 자신이 개업한 카페 '좋은 나라'에 꼭 들를 것을 다시 당부함.

※ 삽입된 한계령의 의미

한계령-노래 양희은

저 산은 내게 우지 마라 우지마라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 산중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노래 속에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봉우리를 향해 힘겹게 올라가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지친 어깨를 떠미는 바람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나는 노래를 통해서 젊음을 운동 바쳐 식구를 부양해야했고 지금은 자신의 삶을 허탈한 심정으로 과거를 되돌아보는 오빠의 모습을 본다.

허탈감에 빠져 있는 큰오빠의 모습을 안타깝게 동정하던 나는 노래 한계령이 마치

큰 오빠의 삶을 노래하는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나의 어린시절 친구 은자가 미나박이란 이름의 밤무대 가수가 되기까지의 고달프고도 힘들었던 삶이 노래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 줄거리

어느 날 나는 쉼 목소리의 전화를 한 통 받는다. 전화의 주인공은 25년 전 전주의 철길 옆동네에 살던 찐빵집 딸 박은자였다. 은자는 신문사에서 나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으며, 소설가의 옛 친구임을 자랑스러워했다. 은자는 내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까 봐 머뭇거리는 기색이었으나 나는 25년 전 그녀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 불렀던 은자는 지금 밤무대 가수 미나 박이 되어 있었다. 부천의 나이트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은자는 다음 주에 신사동에 카페를 개업하게 되어 이번 주까지만 부천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꼭 자신을 찾아오라는 다짐을 한다.

나는 전화를 끊고 옛 추억에 잠긴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나서는 생계를 큰오빠가 도맡아 꾸려가고 있었다. 큰오빠 밑으로 네 명의 오빠와 나, 여동생이 딸린 대식구였지만, 큰오빠는 그 식구들을 늠름하게 잘 키워 성공시켜 놓았다. 언제나 돈이 궁했던 시절, 용돈을 털어 사먹었던 은자네 찐빵은 별미 중에 별미였다. 나는 그런 은자의 전화가 반가웠지만, 은자를 찾아가는 일을 왠지 망설이게 된다.

다음 날, 은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 재회를 재촉한다. 은자는 한때 고생했지만, 지금은 아들을 둘 두었으며 성공해서 꽤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은자의 전화를 끊은 나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는다. 전주의 옛 고향집에서 큰오빠와 살고 있는 어머니는 큰오빠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매일 술로 지낸다는 이야기를 한다. 큰오빠는 고생 끝에 얻은 성공 뒤의 허망함을 느끼는 듯했다. 나는 은자를 찾아가기로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은자가 마지막으로 나이트클럽에 출연한다는 일요일, 나는 큰오빠가 고향집을 팔기로 했다는 동생의 전화를 받는다. 결정을 내리고 나서도 끝까지 고향집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큰오빠가 몹시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은자를 찾아간다. 그곳에서 짙은 화장을 하여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여가수가 부르는 한계령을 듣는다. 노래를 들으며 나는 큰오빠가 살아온 세월과 고단한 삶의 무게가 떠올라 눈물을 흘리며 노래에 빠져든다. 나는 그 여가수가 은자라고 생각하며 그냥 돌아온다. 사흘 뒤 은자는 전화를 걸어 자신을 찾아오지 않은 나의 무심함을 질타한다. 그리고 신사동에 '좋은 나라'라는 카페를 개업했다며 그곳에 들를 일이 있으면 꼭 찾아오라고 말한다. 나는 은자가 지은 '좋은 나라'라는 카페 이름에 감탄한다.

▣ 수행 문제

1. '나'가 끝내 은자를 찾아가서 만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은자는 나에게 있어 고향의 표지판이다. 즉 고향은 모두 변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있는데, '나'에게 그런 기억 속의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은자이다. 즉 '나'는 은자에 대한 옛 기억들로써 고향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나는 변해 버린 은자를 보고서 마음속에 남아 있는 고향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은자를 만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2. 이 작품은 '나'의 옛 고향 친구인 은자의 이야기와 '나'의 큰오빠의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는 왜 은자의 전화를 받고 나서 큰오빠를 떠올리게 되는지 생각해 보자.

⇒ 은자는 '나'에게 있어 고향을 상징하고 그런 '나'의 고향은 언제나 큰오빠에 의해 이루어지고 지켜져 온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은자가 털어놓는 힘든 삶의 여정과 이제 비로소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고백은 여태까지 힘겹게 달려왔으면서, 그 도착 지점에 다다라 돌아온 생을 돌아보며 아쉬움과 허전함을 견디지 못해 괴로워하는 큰오빠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1

서경(평양)이 서경이 서울이지마는

중수(重修)한 곳인 중수(重修)한 곳인 소성경(小城京 : 수도인 송도에 대하여 서경을 이르는 말)을 사랑합니다마는
(여인이 사랑하는 곳)

(임을) 이별할 것이라면 (임을) 이별할 것이라면 (차라리) 길쌈하던 베(여인의 모든 것, 생업)를 버리고서라도(존대의 뜻이 아님)[임과 이별할 것이면 차라리 '질삼베'를 버리고서라도 임을 좇겠다는 적극적이고 활달한 화자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저를)사랑만 해 주신다면 (저를)사랑만 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 이별을 아쉬워하는 연모의 정

구슬이 구슬이 바위 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설의적 표현]

(임과 헤어져) 천년을 천 년을 홀로(외따로) 살아간들

(사랑하는 임을) 믿는 마음이야 믿는 마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끊기고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 설의적 표현)? - 임에 대한 끊지 못하는 사랑과 믿음의 맹세

대동강 대동강[대동강은 배가 없으면 임이 떠날 수없는 공간이므로, 화자와 임의 이별을 매개해주는 공간이다 / 임과의 공간적 단절감을 드러내는 배경]이 넓은 줄을 몰라서

배를 내어 배를 내어 놓았으나 사공아.

네 아내가 네 아내가 놀아난 줄도(음탕한 짓을 한 줄도, 너의 시름이 큰 줄을 몰라서 등으로 해석) 모르고

다니는 배에 다니는 배에(떠나는 배에) 몸을 실었느냐 사공아.(시적 화자는 떠나는 임을 붙들지 못하는 답답함을 '저 배가 없었으면 떠나지 못할 텐데'라며 제 3자인 사공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된다. 또 사공의 부인에 대해 험담까지 하고 있는 것은 사공으로 하여금 배의 운항을 중단하게 하려는 적극적 의도이지만 그 속뜻은 임에 대한 강렬한 애정을 엿보게 한다. 이 구절은 엉뚱하게 욕을 얻어 먹는 사공의 처지가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사랑에 눈먼 여인의 남탓이 볼 만하고, 당시 여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 또한 '가시리'와 더불어 성별 차별의 사회적 속성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여성의 적극적 의지가 다소 강하다는 것이다.)

(나의 님은) 대동강 건너편 꽃(여기서는 다른 여인, 즉 임이 새로이 좋아하는 여인을 비유함)을 배를 타면 꺾을 것
입니다(그곳 여인과 사랑을 맺을 것입니다. / 화자의 질투와 원망의 감정이 드러남). - 떠나는 임에 대한 애원

▣ 현대어 해석

서경(평양)이 서경이 서울이지마는

중수(重修)한 곳인(새로 닦은 곳) 중수한 곳인 소성경(小城京)을 사랑합니다마는

임을 이별할 것이라면 (임을 이별하기보다는) 임을 이별할 것이라면 차라리 길쌈하던 베를 버리고서라도
사랑만 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

구슬이 바위 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임과 헤어져) 천 년을 홀로 살아간들

사랑하는 임을 믿는 마음이야 끊기고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동강이 대동강이 넓은 줄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네 아내가 놀아난 줄도 모르고(너 아내가 음란한 지 몰라서, 네가 시름이 큰 줄을 몰라서)

(가는 배)다니는 배에 몸을 실었느냐 사공아.

(나의 님은)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를 타고 건너편에 들어가면 배를 타고 건너편에 들어가면 꺾을 것입니다.

▣ 작품 해설 1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의 배경은 대동강변이다. 푸른 물결을 앞에 두고 임과 이별하는 화자는 자신의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직 임의 사랑만을 애원하며 하소연한다. 한(恨)의 정서로 애절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은 우리 시가 문학의 전통으로서 평민적 서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같은 고려 속요 작품인 「가시리」 역시 이별의 슬픔과 간절한 사랑을 노래하였으며, 이러한 정서를 근대시에서 계승한 것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이 평민적 감정의 발현으로서 고려 속요의 가치를 보여 주는 특징적인 면은 3연에 있다. 즉, 한편으로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보이면서도, '강만 건너면 혹시 다른 여인을 사귀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과 질투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는 것은 사랑을 쟁취하려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현실적 생활 감정의 표현인 것이다.

골계미(滑稽美)를 함축하고 있는 이 노래는 '가시리'와 함께 별리(別離)의 노래로 쌍벽을 이루고 있다. 또한 西京과 大洞江이라는 구체적 지명을 드러냄으로써 강한 향토애를 표현하고 있다. 대동강을 경계로 하여 미지의 세계, 나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진다는 점에서 '대동강'은 '이별의 강'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서경'은 '이별이 없는 사랑의 세계'라는 의식을 담고 있다. 서정적 자아의 목소리는, 적극적이고 꾸밈이 없고 활달하였던 당대의 여인들의 모습을 소박하게 담고 있다.

▣ 핵심 정리

■ 갈래 : 고려속요, 고려가요, 장가

■ 형식 : 전 3연 14절, 3:3:3조의 정형률

■ 운율의 형성

- 동일어의 반복
- 동일 음운의 반복
- 음보의 규칙성
- 일정한 음절수의 반복

■ 성격 : 진솔(眞率), 직선적, 적극적

■ 주제 : 이별의 정한(情恨)

■ 특징

- '아즐가'라는 의미 없는 말을 넣고, 매구 끝에는 후렴구가 있음
- 조선시대에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라 비판받기도 했음
- 반복법, 설의법, 비유법을 통해 감정을 진솔하고, 직설적, 적극적으로 표현함
- 각 구절 앞의 동일어 반복을 통한 운율감
- "동동"이 시간구조로 짜여져 있다면 이 작품은 공간구조로 짜여져 있음

■ 의의 : '청산별곡'과 함께 창작성과 문학성이 뛰어나다.

■ 구성

⇒ 여자가 떠나는 남자에게 말을 건네는 희곡적 구조로 전 3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 연은 4구로 되어 있으며, 총 14연, 이 노래의 각 연은 시상 전개에 있어서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어조 역시 상당히 이질적이다. 1연과 3연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2연에서는 이성적인 어조를 지닌 남성의 목소리가 나타난다. 2연은 고려 속요인 '정석가'와 동일한데, 이는 당대에 이와 같은 구절이 유행했다는 점을 말해 주기도 하고, 구전되는 과정에서 후대 사람들에 의해 첨삭 중복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노래는 단일한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 당시 여러 노래들이 합성하여 만들어진 곡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 1연(1-4절)- 이별을 아쉬워하는 연모의 정 (여인의 목소리)
- 2연(5-8절)-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의 맹세 (남성의 목소리)
- 3연(9-14절)- 떠나는 임에 대한 애원 (여인의 목소리)

★ 핵심 시어의 의미

■ 대동강(임과의 공간적 단절감을 드러내는 배경)

⇒ 대동강은 배가 없으면 임이 떠날 수 없는 공간이므로, 화자와 임의 이별을 매개해주는 공간이다

■ 사공(임에 대한 강렬한 애정을 제 3자인 사공에 대한 원망으로 대신 표출하는 대상)

⇒ 시적 화자는 떠나는 임을 붙들지 못하는 답답함을 '저 배가 없었으면 떠나지 못할 텐데'라며 제 3자인 사공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된다. 또 사공의 부인에 대해 험담까지 하고 있는 것은 사공으로 하여금 배의 운항을 중단하게 하려는 적극적 의도이지만 그 속뜻은 임에 대한 강렬한 애정을 엿보게 한다. 이 구절은 엉뚱하게 욕을 얻어먹는 사공의 처지가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사랑에 눈먼 여인의 남탓이 볼 만하고, 당시 여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 또한 '가시리'와 더불어 성별 차별의 사회적 속성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여성의 적극적 의지가 다소 강하다는 것이다.

※ 시적화자의 의도를 고려할 때, '사공'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시어

개를 여라문이나 기르되 요 개갓치 알미오라.

뫼운 님 오며는 꼬리를 뽏뽏치며 뉘락 나리 뉘락 반겨서 내닷고, 고운 님 오며는 뒷발을 버둥버둥 므르락 나으락 캉 캉 즈져서 도라가게 한다.

쑤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라.

■ 꽃⇒ 여기서는 다른 여인, 즉 임이 새로이 좋아하는 여인을 비유함

★ '서경별곡'에 나타난 여인의 성격

'서경별곡'은 '가시리'와 함께 이별의 정한을 읊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 그러면서 서정적 자아의 목소리가 여성적이라는 데에도 공통적인 면을 지닌다. 그러나 '가시리'에 나타나는 서정적 자아가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고(忍苦)와 순종을 미덕으로 간직하는 여인의 성격을 지녔다면, 이 노래의 서정적 자아는 적극적이고 활달했던 고려 시대 서경의 여인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 희생과 감정의 절제를 통해서 재회를 기약하고 있는 '가시리'와는 달리 '서경별곡'은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함께 있는 행복과 애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 3연에 나타나는 '사공'과 '그의 아내'는 사실은 남은 여인과 떠나는 임이 대동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곧 다른 연인에게 정을 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서정적 자아의 목소리에서 골계적(滑稽的)인 미를 발견할 수 있다.

★ '가시리'와 '서경별곡'의 화자의 태도

'가시리'와 '서경별곡'은 다같이 이별을 노래한 작품이며, 그 화자가 여성이리라고 판단되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가시리'가 자기 희생과 감정의 절제를 통해서 재회를 기약하는 이별가라면, '서경별곡'은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함께 있는 행복과 애정을 강조한 이별가라고 하겠다. 따라서 '가시리'의 화자가 인고와 순종을 미덕으로 삼는 소극적이고 자기 희생적이며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교양을 갖춘 여인이라면, '서경별곡'의 화자는 사랑과 믿음을 중요시하는 자기 중심적이며 직선적인 성격의 여인이라 할 수 있다. '서경별곡'의 마지막 연의 내용은 이러한 감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화자가 사공에게 사공의 아내가 정분이 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 사공을 집으로 돌려보냄으로써, 님이 대동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 전통적 정서와 서정적 자아

이 시의 서정적 자아는 여성이다. 이별에 따른 정한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이별의 정한'은 멀리 고구려의 "황조가"에서부터 현대시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황조가에서는 이별의 정한이 '꼬꼬리'라는 대상을 매개로 하여 부각되고 있는데, '서경별곡'에서는 어떤 매개체 없이 직선적이다. 그만큼 감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별의 정한'은 '가시리'를 비롯한 여타의 고려 속요, 정지상의 '송인'과 같은 한시, 황진이 시조, 민요의 '아리랑', 김소월의 '진달래꽃' 등 많은 문학 작품에 한국 여인의 보편적 정서로 나타나고 있다.

▣ 작품 해설 2

요점 정리

- 작자 : 미상(未詳)
- 연대 : 고려 때
- 갈래 : 고려 가요
- 성격 : 진솔(眞率), 직선적, 적극적
- 형식 : 3음보로 매연 끝에 후렴, 분연체, 3연 14절 (3·3·3조가 주류)
- 제재 : 임과의 이별
- 주제 : 이별의 정한, 이별의 슬픔
- 표현 : 반복법, 설의법, 비유법을 통해 감정을 진솔하고, 직설적, 적극적으로 표현함
- 구성 : 여자가 떠나는 남자에게 말을 건네는 희곡적 구조로 전 3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 연은 4구로 되어 있으며, 총 14연. 이 노래의 각 연은 시상 전개에 있어서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어조 역시 상당히 이질적이다. 1연과 3연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2연에서는 이성적인 어조를 지닌 남성의 목소리가 나타난다. 2연은 고려 속요인 '정석가'와 동일한데, 이는 당대에 이와 같은 구절이 유행했다는 점을 말해 주기도 하고, 구전되는 과정에서 후대 사람들에 의해 첨삭 중복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노래는 단일한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 당시 여러 노래들이 합성하여 만들어진 곡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1연 - 1-4절	이별을 아쉬워 하는 연모의 정 (여인의 목소리)
2연 - 5-8절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의 맹세 (남성의 목소리)
3연 - 9-14절	떠나는 임에 대한 애원 (여인의 목소리)

- 특징 : '아즐가'라는 의미 없는 말을 넣고, 매구 끝에는 후렴구가 있음. 조선시대에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라 비판받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배 타들면 것고리이다'는 여인의 정조를 범한다는 의미로 유교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 의의 : "청산별곡"과 함께 창작성과 문학성이 뛰어나다.
- 출전 : 악장가사(樂章歌詞), 시용향악보(時用鄉樂譜)

■ 이해와 감상

골계(익살을 부리는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는 일)미를 함축하고 있는 이 작품의 배경은 대동강변이다. 푸른 물결을 앞에 두고 임과 이별하는 화자는 자신의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직 임의 사랑만을 애원하며 하소연한다. 한의 정서로 애절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은 우리 시가 문학의 전통으로서 평민적 서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같은 고려 속요 작품인 '가시리' 역시 이별의 슬픔과 간절한 사랑을 노래하였으며, 이러한 정서를 근대시에서 계승한 것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이 평민적 감정의 발현으로서 고려 속요의 가치를 보여 주는 특징적인 면은 3연에 있다.

즉, 한편으로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보이면서도, '강'만 건너면 혹시 다른 여인을 사귀지나 앓을까'하는 불안과 질투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는 것은 사랑을 쟁취하려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현실적 생활 감정의 표현인 것이다.

이 노래는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음미할 수 있다. 첫 부분은 이별의 고통과 임의 뒤를 따르겠다는 애절한 소망과 연모(戀慕)의 정을 노래한 8행까지이고, 둘째 부분은 사랑의 정(情)은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노래한 16행까지, 마지막 부분은 임을 배에 싣고 떠나는 사공을 원망하는 내용이 담긴 마지막 행까지이다. '서경별곡'의 둘째 연은 '정석가'의 여섯째 연과 일치한다. 이것은 구전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이 그대로 채록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 심화 자료

- '서경별곡'에 나타난 여인의 성격

'서경별곡'은 '가시리'와 함께 이별의 정한을 읊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 그러면서 서정적 자아의 목소리가 여성적이

라는 데에도 공통적인 면을 지닌다. 그러나 '가시리'에 나타나는 서정적 자아가 전통적으로 나타나는,인고(忍苦)와 순종을 미덕으로 간직하는 여인의 성격을 지녔다면, 이 노래의 서정적 자아는 적극적이고 활달했던 고려 시대 서경의 여인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 희생과 감정의 절제를 통해서 재회를 기약하고 있는 '가시리'와는 달리 '서경별곡'은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함께 있는 행복과 애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 3연에 나타나는 '사공'과 '그의 아내'는 사실은 남은 여인과 떠나는 임이 대동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곧 다른 연인에게 정을 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서정적 자아의 목소리에서 골계적(滑稽的)인 미를 발견할 수 있다.

작품	공통점	차이점
서경별곡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고려 가요이며 화자의 목소리가 여성적임	적극적이고 활달한 고려 시대의 여성상
가시리		인고와 순정을 미덕으로 간직하는 여성상

▪ '가시리'와 '서경별곡'의 화자의 태도

'가시리'와 '서경별곡'은 다같이 이별을 노래한 작품이며, 그 화자가 여성이라고 판단되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가시리'가 자기 희생과 감정의 절제를 통해서 재회를 기약하는 이별가라면, '서경별곡'은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함께 있는 행복과 애정을 강조한 이별가라고 하겠다. 따라서 '가시리'의 화자가 인고와 순종을 미덕으로 삼는 소극적이고 자기 희생적이며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교양을 갖춘 여인이라면, '서경별곡'의 화자는 사랑과 믿음을 중요시하는 자기 중심적이며 직선적인 성격의 여인이라 할 수 있다. '서경별곡'의 마지막 연의 내용은 이러한 감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화자가 사공에게 사공의 아내가 정분이 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 사공을 집으로 돌려보냄으로써, 님이 대동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 전통적 정서와 서정적 자아

이 시의 서정적 자아는 여성이다. 이별에 따른 정한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이별의 정한'은 멀리 고구려의 "황조가"에서부터 현대시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황조가에서는 이별의 정한이 '괴꼬리'라는 대상을 매개로 하여 부각되고 있는데, '서경별곡'에서는 어떤 매개체 없이 직선적이다. 그만큼 감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별의 정한'은 '가시리'를 비롯한 여타의 고려 속요, 정지상의 '송인'과 같은 한시, 황진이의 시조, 민요의 '아리랑', 김소월의 '진달래꽃' 등 많은 문학 작품에 한국 여인의 보편적 정서로 나타나고 있다.

▪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

조선 전기의 학자들이 고려가요(高麗歌謠)를 낮추어 부른 명칭. 고려가요에는 남녀간의 사랑을 읊은 노래가 많은데, 표현이 너무 사실적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국시(國是)와 유교적 안목으로는 매우 못마땅하였으므로, 비방하는 뜻으로 부른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고려가요가 망실되었고, 지금 전하는 '쌍화점(雙花店)', '이상곡(履霜曲)' 등도 내용이 많이 수정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밖의 작품들을 들면, '만전춘(滿殿春)', '가시리', '서경별곡(西京別曲)', '청산별곡(靑山別曲)' 등이 있다.

▪ 고려 속요의 형태적 특성

고려 속요는 3·3·2, 혹은 3·3·3조의 3음보 연장체(聯章體)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연은 후렴구를 중심으로 전후절(前後節)이 나뉘는, 분절체(分節體) 형식을 취한다. 특히 다양한 후렴구는 민요적 성격을 반영하며,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매끄러운 리듬을 살리고 있다.

▪ 페미니즘(feminism)

여성억압의 원인과 상태를 기술하고 여성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운동 또는 그 이론.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여성 참정권 운동에서 비롯되어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페미니즘의 시초는 자유주의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에 의하면 여성의 사회진출과 성공을 가로막는 관습적, 법적 제한이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의 원인이다. 따라서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기회와 시민권이 주어진다면 여성의 종속은 사라진다고 한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을 비판하면서 사적 소유가 존재하는 한 참된 기회균등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 F.엥겔스는 여성억압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자본주의가 바로 여성억압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급진적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에 기초한 법적·정치적 구조와 사회·문화적 제도가 여성억압을 가능하게 하는 것 외에 생물학적인 성(性)이 여성의 정체감과 억압의 주된 원인이며, 여성해방은 출산·양육 등의 여성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 성별 특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하고, 여성억압은 노동자 억압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따라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한 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 동아대백과사전)

▪ 서경별곡

고려시대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속요. <<악장가사 樂章歌詞>>·<<대악후보 大樂後譜>>·<<시용향악보>>에 실려 있어 악곡 구조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작자와 제작동기에 관한 기록이 없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청산별곡 靑山別曲>과 더불어 궁중악장 가운데 대표적인 속악의 하나로 조선 전기까지 궁중에서 애창되었다.

작품의 형식은 3음보 율격구조에다 모든 연의 끝에 후렴이 붙는 연장체(聯章體) 가요로서 전형적인 속요의 형태를 보인다. 이 작품은 음악적 측면에서는 <<악장가사>>에 수록된 형태대로 13연으로 분석되며, 그 여음과 후렴 또한 질서정연한 규칙성을 보여준다. 이와는 달리 여음을 제외하고 통사론적으로 분석할 때는 3연의 구조를 가진다.

즉, 이 작품은 서경으로 시작되는 1연과, 같은 속요인 <정석가 鄭石歌>와 사실이 일치하는 2연과, 대동강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되고 있는 3연으로 구조가 분리된다. 여기서 2연은 이제현(李齊賢)의 <소악부 小樂府>에도 한역(漢譯)되어 있어, 당대에 널리 유행하였던 가요(민요)로 짐작된다.

이런 이유로 작품의 구조에 있어서 형태상·의미상의 괴리와 이질성을 보인다. 이것은 곧 이 작품의 형성이 제1연의 서경 노래, 제2연의 당대에 유행했던 민요, 제3연의 대동강 노래, 이렇게 세 가요(민요)를 당대에 새로 유입된 궁중의 속악 악곡에 맞추어 연마다 여음과 후렴을 붙여 합성·조절한 가요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기도 한다.

또 이와는 달리, 각 연의 정조(情調)를 중시하여 제1연과 3연이 불길 같은 감정의 표출을 담은 여성의 사설임에 반해, 제2연은 싸늘한 이성(理性)의 소리로 된 남성의 사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남녀 사이의 대화를 담은 희곡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2연이 과연 남성적 정조인지는 의문이라 하겠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1

: 상황의 꽃(극악한 상황이 꽃으로 환치된 역설), 전쟁은 멈추었지만, 더욱 깊어진 증오심으로 대치되어 있는 분단의 모습 상징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火山)**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姿勢)**로 **꽃**이 되어야
: 6·25와 같은 민족 상잔의 전쟁 상징 : 남북이 서로 대치해서 원수처럼 적대시하는 자세,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닌 분단 상황을 비아냥의 어조로 이야기함
쓰는가. : 의문형-우리의 각성 촉구

남북 분단의 어두운 현실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高句麗) 같은 정신**도
: 우리가 둘이 아닌 하나,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정신 : 중국 대륙을 차지하려던 기백
신라(新羅)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 위급을 당했을 때 고구려 또는 백제에 도움을 청했던 화해 정신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意味)는 여기에 있었던가. : 우리 조국, 국토는 하나. 팽팽한 긴장으로 대립하는 남과 북의 현실, 통일의 당위성

민족의 적이 되어 대치한 불안한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廣場).
: 6·25 남북의 대치 상태가 언제 전쟁으로 터질 지 몰라 불안한 현실 상황<조국>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休息)인가, 야위어가는 이야기뿐인가.
민족의 정기<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단절된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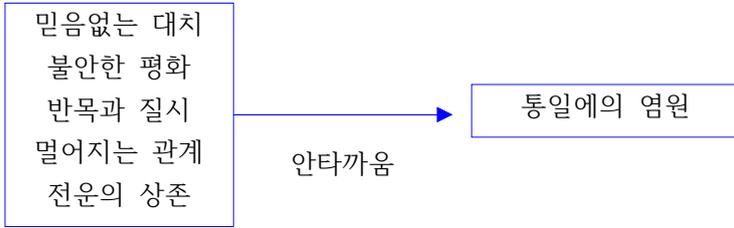
나무 하나 서 있지 못할 광장(분단의 의미 재조명) 2,3,4연
- 전쟁이나 애국시가 보여주는 감정의 발산이 억제됨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 같은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거**
: 전쟁 :전운
우살이를 또 한 번 겪어야 하는가. 아무런 죄(罪)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 대치의 현실 상황의 꽃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언제 한번은 불고야 말 징그러운 바람(전쟁)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火山)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姿勢)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남북 분단의 어두운 현실



휴전선

▣ 본문 해설 2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남북 대립의 현실

어두움 속에서 꼭 한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전쟁 암시 예상하면서도 서로 대치하는 자세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전쟁에 시달려야하는 우리 겨레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지켜가려는 존재 즉 우리 겨레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남북이 서로 대립하는 현실 강산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

고구려와 신라 때와는 달리 불안하기만 하다 아무런 잘못 조국은 하나인데 땅은…,

통일에 대한 염원과 의지

나인데…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휴전선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6.25는 일단 끝났지만 나무 한 그루조차 언제 전쟁이 터질지 불안해 함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 가는 이야기

뿐인가. 핏줄 휴전 계속되어 가는 분단의 상황

6.25로 인한 민족사의 쇠퇴.몰락 암시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

전쟁에 대한 공포

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겨레 증오와 불신으로 마주선 자리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
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 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수미 상응→ 분단된 조국의 운명을 강조함

■ 작품 해설 1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참여시
- * 율격 : 내재율(산문적 리듬)
- * 성격 : 상징적
- * 어조 : 분단 극복을 열망하는 목소리
- * 제재 : 휴전선
- * 주제 : •동존 상잔의 전쟁 후 분단으로 인해 갈등하는 민족의 현실
 - 분단의 현실과 우리의 자세(분단의 현실 인식을 통해 우리의 각성 촉구)
 - 남북 분단 상황의 비극과 그 극복의 촉구
- * 시적 화자의 태도 : 민족 분단의 암울한 상황을 고발하면서 전쟁이 아닌, 민족의 대화와 화해만이 공존의 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상호간의 적대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완곡어법(의문형)을 구사하여 분단의 고통을 감수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이지적 자세를 보임
- * 화자의 현실 인식 태도 : 화해와 공존

■ 이해와 감상

1956년<조선일보>신춘 문예에 당선된 작품이다. 남북이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고 대치해 있는 휴전선의 긴장을 제재로 삼은 것으로, 당시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던 불안과 긴장과 절망감이 호소력 있게 표현되고 있다. 특히 전체적으로 ‘~는가’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통해 역사 현실에 대한 지은이의 강한 의문을 표시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더욱 절실히 유도해 내고 있다.

물론, 이 작품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남북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 시이다. 그런데 이 시의 주제 의식은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새로운 것도 신기할 것도 없다. 요즘에야 남북 정상이 만나고 민족 화해에 기초한 통일 논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6.25를 치른 직후인 1950년대의 사정은 지금과는 현격하게 달랐다. 이 무렵은 철저한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통일관이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여진 시기였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이 시의 의의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남북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 시가 씌어졌다는 사실 자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시대적인 억압을 뛰어넘으려는 시인의 용기와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를 선취(先取)한 시인의 자유롭고 활달한 상상력이다.

아울러, 남북이 증오와 대립의 자세를 고수할 경우 또다시 전쟁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민족의 화해를 위한 자세의 전환을 촉구한 이 시의 예언자적, 선지자적 목소리가 적절한 비유적 형상과 어우러지면서 자아내는 시적 감동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 작품 해설 2

1. **지은이** : 박봉우(朴鳳宇 1934-1990) 시인. 광주(光州) 출생. 1959년 전남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1952년 <문학예술>에 “석상의 노래” 당선. 195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휴전선” 당선. 1958년 전남문화상 수상. 1962년 제8회 현대문학상 수상. 시집으로는 <휴전선>(1957), <4월의 화요일>(1962), <황지(荒地)의 풀잎>(1976), <서울 하야식(下野式)>(1985), <딸의 손을 잡고>(1987), <나비와 철조망>(1991) 등이 있음

2. **이해와 감상**

이 시는 6.25 이후 민족 분단의 아픔을 격정적 어조로 표현한 작품이다. 각 연마다 의문사로 종결하면서 안타까움의 심정을 영탄적으로 표출한다. 더구나 사투리를 직접 써서 삶과 밀착된 정서를 대변한 것이 특징이다.

‘산’은 국토의 대유(代喻)이며, ‘얼굴’은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 마주 향한 산과 산은 그대로 국토 분단의 적대적 상황을 뜻한다. 이 분단 상황에서 민족은 분열되어 서로 절실하고 대결한다. 그러한 상황은 민족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며, 이 부정 속에서는 언젠가 커다란 분쟁이 일어날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대로 불안 속에 안주(安住)하고 있어서 되는가 하고 안타까워한다.

‘꽃’은 연약한 이미지를 주며, 짧은 순간 피었다 결국 지고 마는 것으로 그려졌다. 그러므로 ‘꽃’은 일시적 평화 상태나 그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 놓인 한시적인 삶을 뜻한다.

서로 질시(嫉視)하는 음산한 풍경, 이제 고구려인들이 가졌던 진취적 정신은 사라졌는가? 신라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은 이제 없어지고 말았는가? 옛날에는 동쪽끼리 반목과 질시에만 젖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의 상황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별들은 흩어져 있어도 하늘은 하나인데, 우리 민족을 품은 조국은 그렇지 못하다. 불안한 얼굴로 살아야만 하는 의미, 그런 이념 따위는 애초에 이 국토 안에 있었던가?

꿈만 같았던 전쟁은 가고, 나무 한 그루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허망한 공간으로 현실을 인식한다. 우리를 지켜 줄 울타리 하나 없이 모두 알몸을 드러낸 채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을 ‘광장’이라 표상한다. 정맥이 끊어진 것과 같은 역사의 피해함, 인간성의 상실과 파괴의 상흔(傷痕)은 아직도 가시질 않았는데, 여전히 절망만 존재하는 시대 현실과 삶의 고단함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통탄한다.

휴전 상태인 지금은 겉으로는 조용한 듯하지만 언젠가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고야 말 전운(戰雲)이 늘 감돈다. 지난날 한 번 겪었던 그 참담함을 다시 겪으라는가? 그저 이념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생겨 버린 이 불안한 상황을 얼마나 더 지내야 하는가. 우리의 길은 이 밖에는 또 없는가 하고 가슴을 친다.

불신으로 마주한 이 불안한 상황에서 언젠가는 다시 터질 전쟁을 예상하면서 연약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삶에 안주해서 되겠는가 하고 반문한다.

3. **시구 풀이**

- ①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 ‘화산’으로 연상되는 불의 이미지를 통해 남북 간의 충돌에 의해 빚어질 또 다른 전쟁을 암시한다.
- ②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요런 자세’는 남북한의 적대 관계를 바라보는 화자의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시구이다. 여기서 ‘꽃’은 중요감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을 상징한다.
- ③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 남북 분단의 안타까움을 표현한 구절로,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과 대조된다.
- ④ **모든 유형은 ~ 이야기뿐인가.** : 한국 전쟁 직후의 황폐한 현실, 또는 현실의 불모성을 노래한 부분으로, 전쟁이 가져온 피해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 **분단에 대한 화자의 인식**



5. **표현상의 특징**

- ① 화자는 휴전선이라는 역사적인 산물을 시상 발흥의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감정, 바람을 격정적인 어조로 노래했다.

- ② 전체적으로 '~는가'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을 구사하여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독자들의 정서적인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산문 율조의 형식과 1연을 결미에 다시 배치하는 수미 쌍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④ 비슷한 통사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암시적인 시어와 비유적인 표현으로 감정의 과도한 분출을 억제하고 있다.

6. 핵심 정리

- ①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참여시
- ② 율격 : 내재율(산문적 리듬)
- ③ 성격 : 상징적
- ④ 어조 : 분단 극복을 열망하는 목소리
- ⑤ 제재 : 휴전선
- ⑥ 주제 : 민족 화해와 분단 극복에 대한 열망. 분단의 비극과 그 극복 의지